■교계 학술연구단체 하반기 논문 67편 분석

응용불교학 연구 '학자 관심'

한국불교학을 주도해 가는 한국불교학회, 성철선사상연구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등 주요 불교학술단체들의 올 하반기에 발간하는 불교학 논문 67편을 분석한 결과 교리철학·경전 등 교학 연구가 46.2%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학 집중 현상'에서 벗어나 응용불교학 등의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연구분야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지난 3월 개최한 '세계 승가공동체의 현황과 전망' 학술회의.

〈한국불교학〉(제23집·한국불교학회) 〈백련불교논집〉(제7집·성철선사상연구원) 〈불교학보〉(제34집·동국대학교) 등 6개 불교 학술지에서 나온 학술논문 총 67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리철학 20편(29.8%), 불교문화 12편(17.9%),

'깨달음의 사회화' 기여… 교학집중 여전

근대불교사·범어·백화문 연구 부진

불교경전 11편(16.4%), 불교사 8편(11.9%), 응용불교학 8편(11.9%), 언어 4편(5.9%), 불교문학 2편(2.9%), 계율·수행 2편(2.9%) 등이다.

화엄·유식·선·여래장 등 대승불교 연구가 주류를 이룬 교리철학과 불교경전 분야의 비중이 큰 것은 선과 교학의 전통이 강한 한국불교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학 집중 현상은 교학의 발전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겠지만, 이와함께 불교가 사회의 제반 문제를 공유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구 분야의 다양화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 논리학·심리학·비교종교학 등의 응용불교학 연구는 11.9%(8편)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타학과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시도되었던 응용불교학 연구들이 불교학계에서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변화로 풀이된다.

응용불교학은 불교가 관념의 종교라는 한계를 넘고 삶의 구체적 현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실천의 이론작업으로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깨달음의 사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교수(동국대 불교학)는 "신행, 포교 등의 학술적 이론이 미미한 분야를 연구해 불교학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며 응용불교학이 늘어나는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불교사 연구 논문 8편중 근대불교사 연구는 1편으로 근대불교 연구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율·수행에 대한 연구도 전문 수행인을 위한 '청규'와 '화두참구'에만 국한되고 있어 재가불가의 올바른 계율관과 신행을 이끌어 주기 위해 신행·포교 관련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언어 분야의 연구에서도 지관스님의 금석학 관련 논문을 제외하면 중국 고대어인 '백화문법 연구'가 유일하다.

신규탁교수(연세대 철학)는 "한국불교는 한문경전을 기반으로 발전했지만 정작 경전을 기록했던 백화문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며, 이것이 경전 연구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불교학이 팔리어 범어 등 원어 뿐 아니라 백화문 연구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올 하반기 발간되는 학술지

단 체	학 술 지	발간월·주제	연락처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 23집	11월·자유주제	(02)260-3120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34집	11월·자유주제	(02)710-9329
성철선상연구원	〈백련불교논집〉 7집	11월·선(禪), 자유주제	(02)265-5215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가산학보〉 6집	10월·자유주제	(02)765-9602
한국불교연구원	〈불교연구〉 15호	11월·불교와 유교	(02)3411-6167
원효학회·연구원	〈원효학〉 2권	11월·원효의 신(信)	(0561)42-9922

"불보살 가피는 화엄법계 연기법"

윤원철교수 주장

"불보살의 가피(加被)는 개인의 염원과 불보살의 자비가 만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화엄법계의 연기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윤원철교수(서울대 종교학)가 18일 성철선사상연구원이 개최한 제3회 백련불교 아카데미에서 '가피, 구도, 제도(加被, 求道, 濟度)'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불교가 기복종교라는 허울을 벗기 위해서는 불자들이 흔히 쓰고 있는 말인 가피, 구도, 제도 등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불보살의 가피란 불교의 종교·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가피의 주체 신격화 유일신적 사고의 오류"

윤교수는 "많은 불자들이 가피를 주는 주체로 약사여래 등을 생각하고, 이들 주체를 타종교에서의 신(神)처럼 여기곤 한다"며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불교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종교다원화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일신에 대한 일방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는 서양의 종교관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려하기 때문에 가피의 개념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교수는 "동양의 종교관은 신앙 뿐만 아니라 이성을 강조한 철학도 포함하는 것이기에 불교와 같은 동양의 종교는 서양의 'Religion(종교)'과는 다르게 신앙과 이성을 바탕으로 종(宗), 교(敎), 학(學)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교수는 "불보살 가피의 올바른 개념은 화신이 보신을 통해 법신의 세계를 보여 준다는 삼신불 사상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화엄법계의 연기"라며 "가피, 구도, 제도 등의 개념을 새롭게 세워 원시, 부파, 대승 등 다양한 불교 교리의 입장에서 재정립하고 이들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불교발전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욱〉

'원흥사 창건 일본불교 견제 위해"

김경집 박사 '1902년 창건설' 주장

대한제국이 정토종 등 일본불교를 견제하기 위해 동대문 근교에 창건했던 도심사찰 원흥사(元興寺)는 한국불교의 전통 법맥을 보전-계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창건 시기를 둘러싸고 학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최근 '원흥사의 창건과 그 시대적 의의'를 발표한 김경집박사(동국대 불교학)는 "원흥사는 대한제국 광무 6년인 1902년에 창건됐다"고 밝혀 그동안 1899년·1906년 창건설 등의 연대 논쟁을 일축했다.

이같은 주장은 종토종 대승도(大僧都) 황안진수(廣安眞隨)가 1898~1902년까지 한국에서의 포교사를 기록한 〈정토종한국개교지(淨土宗韓國開敎誌)〉를 토대로 제기됐다. 김박사는 "이 책에는 1902년 원흥사 개당식에 초청을 받았던 황안진수가 5백여명의 스님과 3백여명의 재가신도가 참석했던 당시 개당식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며 '1902년 창건설'을 뒷받침했다.

또 "황안진수는 일본불교의 교세가 경성내에서 위세를 발휘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한제국이 주도한 것으로 창건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며 "이것은 원흥사 창건의 시대적 의미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흥사는 산중불교에 길들여진 한국불교가 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생력이 결여되어 있었고, 대한제국이 원흥사 창건이후 적극적인 흥불(興佛) 후속 정책을 시행하지 못해 2년만에 폐사되었다.

연해주서 발해불교사원 발견

러시아학자 밝혀…금당지·불상 등 출토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서북쪽에 거대한 규모의 발해 불교사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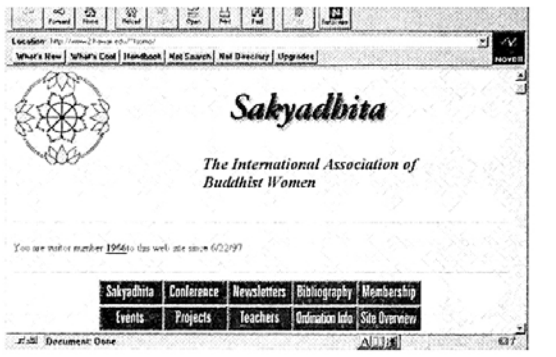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은 현재 이 지역을 발굴조사하고 있는 볼딘(Boldin)학예실장(블라디보스톡 극동고고학연구소)이 21일 동국대박물관 세미나실에서 한 강연에서 밝혀졌다.

볼딘 학예실장에 따르면 크라스키노 성벽을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발해사원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금당지와 탑지를 비롯 가마터와 우물터 등을 발견했다는 것.

지금까지 상당부분 발굴이 진행돼지 않아 확실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주춧돌이 30개나 되는 금당지와 사찰내 가마에서 직접 기와를 구운 흔적이 있어 상당히 규모가 큰 사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출토된 유물은 석불상 3구를 비롯 청동불상과 청동보살상이 각각 1구씩이며, 8세기에서 10세기에 걸치는 기와도 다량 출토됐다.

볼딘실장은 "재정이 어려워 발굴된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나 발해사원지는 연대가 확실하고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발해사원 건축 및 불교미술연구에 중요한 유적"이라고 말했다.



육아·수행등 세계여성불교계 「조망」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부처님의 딸들

세계여성불교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줄리안 밀튼이 하와이대학 서버에 개설한 '부처님의 딸들'(Sakyadihta)이다.

이 사이트는 1987년 인도 부다가야에서 청설된 국제 여성불자연맹 홈페이지로 1991~1996년까지 연맹 소식지의 전산본이 게재됐다. 여기에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서의 신심'(96년)의 주제로 스리랑카 민족-종교 분쟁을 다룬 에세이를 비롯해 여성의 역할·육아·수행 등을 주제로한 글 40여편이 소개된다.

〈만개한 연꽃:여성을 위한 불교 입문〉(비콘출판사), 〈지혜의 여성〉(뉴욕출판사) 〈벼랑에 선 여성불자〉(아틀란틱서적) 등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여성불교 관련 서적 76권의 작가, 출판사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또 ISBN(국제표준서적번호)을 알려주고 있어, 불자네티즌은 이 책들을 국내 서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달라이 라마, 틱낫한, 페마 쵸드론 등 9명의 스님들이 출가를 염원하는 여성불자들에게 감로수 같은 설법과 계율도 전하고 있다.

주소는 http://www2.hawaii.edu/~tsomo/

국제소식

中 성직자 30만명중 스님 20만명

중국의 성직자 30여만명중 승려 수는 20만명으로 밝혀졌다. 이 수는 도교 2만5천명, 이슬람교 4만명, 기독교 2만2천면 등 타 종교 성직자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중국 국무원이 중국 헌법 36조에 따라 조사한 중국의 종교 백서 '중국의 종교 신앙자유 상황'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종교인구는 1억여명이며 종교단체는 3천여개에 달한다. 독립문제로 중국 정부와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는 티벳에서는 1천7백여개 사찰에 4만6천여명의 스님들이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종교인구 수는 개방이후 중국이 종교자유를 존중해 더욱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美 헐리우드스타들 '티벳독립' 앞장

'티벳의 독립'을 주장하는 헐리우드 대형 스타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의 주석 강택민의 발목 잡기에 나섰다. 이 스타들은 리차드 기어, 샤론 스톤, 해리슨 포드, 올리버 스톤 등.

이들은 강주석이 워싱톤을 방문하는 28일부터 '티벳을 밟고 있는 중국군의 군화'를 그린 대형 그림을 워싱톤 거리에 거는 것을 시작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촛불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또 미국 공영방송사도 '티벳의 꿈', '전선' 등의 다큐멘타리도 방영해 티벳을 유린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사회 상황을 그대로 보여줄 예정이다.

클린턴 미 대통령이 강주석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한 백악관 저녁 만찬이 열리는 29일에는 리처드 기어, 해리슨 포드 등이 백악관 주변에서 헐리우드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리처드 기어 등은 지난 4월 달라이 라마에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한 클린턴 대통령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수행자를 위한 여시아문의 책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마음 밝히는 책들 ①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 / 큰스님 / 법어 / 모음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 하신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마음 밝히는 책들 ②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 값 6,000원

삶은 苦가 아니다

대행 / 스님 / 법어집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수행자를 위한 경전 공부①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금강경 대강좌

적연 이제열 법사가 풀이한
금강경 대강좌

선(禪)적인 해석이나 뜻풀이에 그쳐
모든 불자들이
온전히 제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금강경.
그 금강경이 이제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금강 반야의 세계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
우리 앞에 다가선다.

독특한 해석으로
명쾌한 수행방법론을 제시!